

계간 동일 땅끝 소식



동일교회 www.dongilch.com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35길 21 (02-2208-0811~3)



	페루 / 박정화 선교사	2
	살람 / 김광야 · 문소리 선교사	3
	태국 / 이봉우 · 유계화 선교사	4
	태국 / 윤기용 · 김미경 선교사	5
	온두라스 / 권영갑 선교사	6
	남아프리카공화국 / 임인모 선교사	7
	몽골 / 최용현 선교사	8





페루 / 박정화 선교사

◆ 페루선교회 40주년 기념대회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페루 선교 40주년 기념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페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페루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페루선교회 회원 분들과 현지 교회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선교의 비전이 충만하게 넘쳐났음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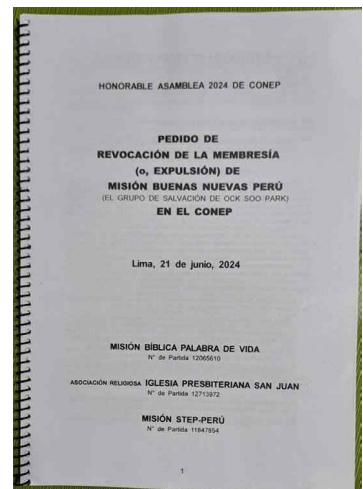
◆ 현지 교단과 협력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정책에 따라 현지 교단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뿌갈빠의 교회사역자들은 ICP교단과 함께 동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ICP와 ipXp 교단이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써 페루 내 모든 통합측 선교사는 이제 'ipXp'라는 단일 교단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은 지난 1년간 기도하며 준비해 온 결과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뿌갈빠는 ipXp 동노회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들의 성장과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페루의 이단들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가 페루복음주의협의회(CONEP)에서 회원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축출이 결정되었으며, 이제 등기 절차만 남았습니다. 2년간의 싸움 끝에 기존 교회 내 침투 세력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이단들의 팽창은 페루 전역에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이 현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길 위의 만남

북페어 전도와 방문팀 일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와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귀국길에 올라 혼자 모든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북페어는 아내와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자매도 다시 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올 해는 유난히 동남아 국가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곳 사람들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안에 뿌려진 것들이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진료소 소식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들을 위한 진료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지난달에는 8명의 아기가 방문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진료소는 현재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설립 이후 교체하지 않은 낡은 의료기구와 의자들을 새것으로 바꾸고, 바닥 공사와 페인트칠도 새로 할 예정입니다. 현지 교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물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협의를 통해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베두인 마을 방문

지난 봄방학을 맞아 동쪽 끝에 자리한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베두인 마을에는 오랜 시간 홀로 거주하며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한 여성 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대학생들의 방문 이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사역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즐거운 놀이를 했습니다. 이 만남이 매년 이어져서 이들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 비전여행

지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타이푸켓교회 소속 청소년 및 대학생 8명과 장년 4명, 총 12명이 한국 비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들의 귀한 발걸음은 한국 땅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앙 여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여행을 통해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의 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하며 귀한 배움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우상 철거

지난해 말, 먼저 믿은 언니의 전도로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집 앞마당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싶다는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와 태국 전도사,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 우상을 철거하고 집안 여러 부적들도 제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믿은 언니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는 믿음까지도 주심을 보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는 이곳 태국 땅에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리기를 기도합니다.



◆ 연합예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지난 20년간 한 건물의 1층과 2층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며 이웃 사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태국 17노회 노회장님을 모시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한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마치 잔치와 같았습니다. 태국교회가 더 안정되고 넓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 보육원 소식

보육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쉐파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하며 끈끈한 가족애를 나눴던 핑끼, 잉, 그리고 낮이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힘든 시간과 기쁜 시간을 함께한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이기에, 떠나 보내는 아쉬움 크지만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아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보육원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구 대회 개최

올해부터 새로운 시도로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작은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축구 규칙과 경기 중 예의를 다짐케 한 후 치렀습니다. 총 6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운동 경기를 넘어, 각 동네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축구 대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청소년 수련회

지난 달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양과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 되었고, 즐거운 게임으로 서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호텔에서 진행되어 시골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고, 수련회 후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높은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태권도 선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2025년 가을 온두라스에서 ‘올림픽 드림 챔피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 온두라스가 복음과 태권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태권도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온두라스의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온두라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현지 교회 헌당 예배

현지 20번째 교회인 ‘거룩한 교회’와 21번째 교회인 ‘안토니오빨마교회’ 헌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두 교회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 집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헌신해주셨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등대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어린이 급식 사역

어린이 급식 사역이 매주 토요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접어든 이 사역을 통해 어린 영혼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역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어머니학교

지난 주간 ‘어머니학교’가 열렸습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상처, 누적된 피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온 어머니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가운데 치유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었고,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새롭게 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구원버스

구원버스 사역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최근 새로운 농장 아이들이 예배에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는 낯섦과 무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주저 없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힘차게 응답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선교센터 새단장

선교센터 새단장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정과 손길에 따라 그분의 때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요 과제들은 메인홀과 숙소 도색 마무리, 낡은 창문 교체, 부족한 샤워실 및 화장실 확충, 기타 부대시설 보완, 그리고 남아공의 불안정한 전기 상황에 대비한 태양광 설치 등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과 필요한 도움의 손길에 따라, 그분의 보퉁에 맞춰 나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단장이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야 신학교

봄학기 광야 신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봄학기부터 현지인 목사님께서 광야 신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골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광야 신학교의 지경이 몽골 전역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시골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학교이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성경의 말씀이 사역 가운데 더욱 확실해지고, 목양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가정 돌봄

봄이 되어 주위 분들의 초청을 받아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각자가 다짐하는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몽골에 홍역이 심하게 퍼져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가 특별방학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수가 여성 모임

수가 여성 모임에서 어려운 가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여성 모임에서 어려운 가정을 선정했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모임에서 주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